



세계일화대회에서 '젊은세대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10월 18일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온 승산 스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상담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들은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공생과 공존의 불교가르침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각국의 선수행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共存 가르침 전파

(공존)

승산 스님 열반 10주기 맞아 열린 제10회 세계일화대회

"목적 없는 인생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학업과 취업 경쟁으로 인해 인생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삶의 철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세계화는 반대급부로 무한경쟁 속에 인간성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찍이 근대화를 경험한 서구 유럽의 청년들은 1970년대 우울증, 소외 등으로 마약중독과 자살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한줄기 광명이 되었던 것이 있다. 바로 승산 스님이 전한 가르침이다.

경쟁 체제 속에서도 타인과 공존하는 삶,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세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끈 승산 스님의 가르침은 서구 유럽 젊은이들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승산 스님의 입적 후에도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전세계 곳곳의 제자들이, 과거 자신들이 경험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위해 다시 공했다.

승산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한국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일화대회가 열린 것이다. 세계일화대회는 세계 도처에 있는 불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3년 마다 한번씩 각국을 돌며 개최한다.

국제관음승가와 국제선원 무상사가 10월 1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제10회 세계일화

대회에서는 미국과 독일, 호주, 이스라엘,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 수행자들이 참석해 '참선수행과 직업' '젊은층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치고, 자신들의 경험을 한국의 학생들에게 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입적식에서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경 스님이 나서 절차타마를 강조했다.

스님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세계가 하나로 소통하는 세계일화 정신이며 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하는 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인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그 가르침은 대중들이 타마를 통해 정신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에 공존의 삶 알려줘야"

이어 '젊은 세대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무한경쟁 체제에서 방향하는 젊은세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세월호 참사와 성남 추락사건으로 희생당한 청소년들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포럼에는 27년 넘게 승산 스님과 함께 수행한 슬로바키아 알렉 추 지도법사, 하버드대에서 학생상담을 진행하는 심성민 법사,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 캠프를 운영 하는 민첸웬 스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민첸웬 스님은 성장기에 공생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했다. 스님은 "캠프를 통해 우정으로 가득찬 인생, 기쁨, 조화,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삶에 대해 느낀 청소년들이 오히려 학업에서도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러한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성민 법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생들조차 막상 대학에 와서는 인생의 목표가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

젊은세대 대한 불교 역할 증점 모색 전세계 제자들 모여 경협담·방향 공유 부용암 오도 기념비 및 서울대 워크숍 '승산 스님 가르침, 시공간 넘는 큰 뜻'

생을 단순히 대학 진학에 맞추었기 때문"이라며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주변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불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미난트란 씨는 "홍콩 시위에서 젊은이들이 나선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행자를 만나 학생들이 수행을 통해 그

들이 느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회장 한편에는 승산 스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담은 '세계생상 보살도' 전시회와 한국에서 수행중인 외국인 스님을 찍은 사진전도 함께 마련됐다. 포럼 중간에 참석자들은 연수원 곳곳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선수행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장진호(30) 씨는 "승산 스님의 가르침을 오래전에 접하고 세계일화대회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해외에서 열려 참석하지 못했다"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 소중한 기회였다. 눈앞의 경쟁과 이득보다, 삶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 오를랜드에서 온 조단 테 헤(39) 씨는 "12년 전 버클리대에서 공부할 당시 은사께서 승산 스님의 제자이셔서 스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며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월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에는 마곡사 부용암에 승산 스님 오도송 비석이 제막되며 이어 20일에는 계룡산 무상사에서 '승산행원대선사 10주기 추모다례제'가 열렸다. 또 25일 서울대에서는 기업경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가 제자들이 한국대학생들과 선수행이 직업 등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진행됐다.

공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년 고민 해결책 큰 스님 가르침서 찾아야"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승산 스님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출한 외국인 제자를 배출한 해외교포의 선구자이자 대선사다. 이번 세계일화대회에 참석한 외국인 제자들만도 300여 명. 이런 대중을 총지휘하는 한 스님이 바로 무상사 조실 대봉(大峰) 스님(사진)이다. 대봉 스님은 외국인 스님으로 유일한 승산 스님 전법(傳法) 제자로 8명의 외국인 제자 중 한 명이다.



대봉 스님에게 이번 제10회 세계일화대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출가인연과 맞닿아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스님은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직하던 병원에서 3년간의 환자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스님은 회의를 느끼고 용접공 등 막일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뉴헤이븐 선원에서 승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1977년 5월, 대봉 스님이 28세였을 때였다. 청년기의 방향 끝에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어서 일가, 대봉 스님은 청년기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1970년대 서구사회의 청년들이 겪었던 정신적 방향을 현대 한국사회, 그리고 아시아 등지의 여러 청년들이 겪고 있다"며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그에 대한 해답을 불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20대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승산 스님을 통해 해결했다"며 "스님은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사람들과 공생하는 삶에 대해 알려주셨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젊은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무상사의 대중들을 이끌며 수행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조실 대봉 스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보였다. "한국불교에서 길을 찾는 이들이 초발심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는 대봉 스님. 스님은 다시 대중들 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입적식에서 승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제자들



대회장에 설치된 사진전을 살펴보는 참가자들



공주 부용암 절이정진 후 승산 스님 오도송비 제막식 장면



부용암에 건립된 승산 스님 오도송비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지...?"

말씀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즉신성불을 주시는 신비의 칠여래부처님 부산자비선원에 나투시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칠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 다보여래부처님 : 입시·시험·고시응시생, 재판계류 해결
- 보승여래부처님 : 행복, 재물 축적, 백만장자의 지름길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결혼인연, 득남 발원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체결 성사
- 이포외여래부처님 : 암·공황장애·우울증·빙의 등 병고해탈
- 아미타여래부처님 : 극락왕생, 48가지 소원성취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제조·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칠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기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침선 중 홀연히 나타나신 큰 노스님이 주장자를 위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배려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두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기린 중 계곡 입구에서 아주 불꽃 같은 빛이 나타나고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여 치어 보니 황동 석재공예에 달랐다. 석장이 "스님 이 돌을 어떻게 하려 말입니까?" 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다. 스님은 "네모든 세모든 타원형이든 사각형이든 무엇이든 다들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돌이 다들어서 왔다. 그 돌을 신중리에 올려 놓고 다들음을 올리기 위해 옮기려 하자 움직이지 않았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금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지졸을 말씀드려 큰스님 역시 들리고 하자 공백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고 놀라시며 잠시 좌정을 하셨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돌이 빛이 번갈아 나온 돌인가 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셨다. "왜 이렇게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시면서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여래부처님과 같은 대좌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받으시며 네 분의 부처님의 응답을 받고 오여래부처님을 모시기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부처님과도 인연을 맺게 되어 마침내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한 도량으로 필름을 찍었다.

큰스님은 "현재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일곱 분의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여래부처님, 둘째 보승여래부처님, 셋째 묘색신여래부처님, 넷째 광박신여래부처님, 다섯째 이포외여래부처님, 여섯째 아미타여래부처님, 일곱째 감로왕여래부처님이다." 하시며 "이 모두를 칠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산자비선원 위치도

부산자비선원: 대연동, 부산자비선원, 부산우유농협 본점, 아시아공동체학교, 배정고등학교, 우문로, 차성대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NAVER 부산자비선원 검색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정고개로 93번길 41(원현동) 부산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전차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